월/요/광/장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역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개원한 지 거의 석달이 되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비록 작게 출발했지만 그 의미에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건립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양대 축을 이룬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적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산업 관련 콘텐츠의 기획, 연구개발, 제작 유통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당 개관 준비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 기관의 내부가 선진적 수준으로 잘 디자인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겨냥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적합한 조건과 창의적 문화 행정이나 경영 방식을 구현하려는 진실된 노력도 만나기 쉽지 않다.

문화예술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취하려면 연구, 조사, 전략, 기획, 제작, 유통이 하나의 총괄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유연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유연성을 위해 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전문 인력들이 매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아시아의 대표 문화기관이 되어야 한다.

전당이 퐁피두센터, 루브르나 대영박물관 같은 명성을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렵다. 당장 채워 넣을 유형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무형의 자산 가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 선택은 한가지 밖에 없다.

바로 사람이다! 아시아 문화개발을 위해 국내, 해외에서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그들이 콘텐츠를 채우고, 그런 것들이 쌓여 아우라를 형성해야 한다.

과연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다행히 이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다. 45년 전에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이 '신동아'(1967)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비빔밥과 굿의 문화가 있어 장차 미디어의 강국이 될 것"이라 예언한 대로 우리는 지금 IT산업의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융합 네트워크 기술과 그 상용화에서 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21세기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던져진 첫 번째 화두는 융합이다. 지금 융합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문화 현상이 되었다. 특히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풀기 어렵지만 활발한 논의 대상이다.

융합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히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즐긴지 오래된 얘기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은 오는 4월이면 가입자가 5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의 작업 공간인 스튜디오와 랩을 통해 예술가, 공연자의 창작이 이뤄지면 작품들은 소통과 유통을 통해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전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술을 논하고, 그것을 콘텐츠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스민 혁명이 SNS라는 네트워크 기술의 힘을 이용했듯이, 전당이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자, 예술가, 과학자들 사이에 기술적 장치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IPTV, 스마트TV, OTT 등의 '원격 소통 기술'이 활용된 전당은 광주와 베이징, 도쿄의 인문학자간 화상 토론을 활성화하고, 뉴욕과 파리를 연결하는 동시간대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된다. 또 SNS를 통해 전파된 세계 각국의 상황이 전시관이나 라이브러리에 영상으로 직접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런 멋진 전당을 진정 바란다면, 전당 조직이 행정 권력 위주로 작동하지 말아야 하고, 중상급의 국내외 전문 코디네이터 그룹이 상호 조율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연성 조직으로 나가야 한다. 행정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유연한 운영을 위해 조직의 법인화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감독, 전시감독의 주관적 취향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고루한 시스템으로 판명된 기존의 비엔날레 방식에서 벗어나 코디네이터들의 다양한 관점들, 신선한 감각들이 교차 융합하여 멋진 '패치워크'를 만들어 내는 쌍방향의 대화형 프로젝트로 진화해 가야한다.

콘텐츠는 당연히 중요하나 그것을 생산하는 방식의 물음, 즉 새로운 생산의 모델을 창안하는 일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전당의 참된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그 기로에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고봉수

제발, 그를 믿지 마세요

일요일 저녁 KBS에서 방영하는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는 '사마귀유치원'이라는 코너가 있다. '뽀뽀뽀'나 '하나둘셋' 등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해 개그맨 정범균(사마귀), 최효종(일수꾼), 조지훈(쌍칼), 박성호 등 4명의 교사가 차례대로 율동, 진학상담, 구연동화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전하는 구성이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보여주며 동심을 키워주지만 사마귀유치원의 교사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학교폭력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재미를 주고 있다.

언젠가 사마귀유치원에서 "친구가 쭈쭈바 사 먹게 200원을 빌려달라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학생이 질문하자 개그맨 박성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들려준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차용증은 써야지~" 이어 박성호는 도장이 없다면 엄지를 이용해 지장을 찍도록 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보는 방청석은 물론 함께 보던 필자의 가족들도 박장대소했지만, 필자는 왠지 모를 씁쓸하고 우울한 감정이 마음 한 켠에서 꿈틀댔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감함을 느낀 경우 중의 하나가 의뢰인의 사정은 딱하고 억울한데 승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부족으로 사건해결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였다.

의뢰인들의 상당수가 지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상당한 가격의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에 선뜻 그냥 큰 돈을 빌려줬고, 믿었기에 그냥 물건을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그 믿음을 나쁘게 이용하거나 변심한다면 그 신뢰는 빌려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져버리고 만다.

오랜 친구에게 거액의 차용금을 떼이는 것은 기본이요, 믿었던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도 하고, 땅을 팔아 놓고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월이 흐른 후 계약서가 없었음을 이용해 매수인에게 불법점유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매도인도 있었다.

필자는 전남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감사로 있으며, 몇 차례 사회적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을 상대로 법률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증거를 남기라는 조언을 매번 빠뜨리지 않고 한다.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받기 거북하면 현금거래를 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서 기록을 남겨라.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꼭 사진을 찍어라" 등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다. 박성호의 개그를 들으며 마냥 즐겁게 웃을 수만도 없었던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현실에서는 필자가 사마귀유치원의 선생님이었던 것이다.

필자도 서로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라는 이상향을 꿈꾸고, 법 역시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며 신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에게 신의를 저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쯤에서 사마귀유치원의 정범균의 어투로 끝을 맺어볼까 한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셨죠? 돈거래를 꼼꼼하게 하는 거 그게 그 순간에는 소심해 보여도 오히려 사랑과 우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마세요~"

〈법무법인 안양 광주분사무소 변호사〉

기고

이한근

학부모들의 참여가 학교를 바꾼다

3월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달이다. 올해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도내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한창이다.

학교운영위원회야말로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학부모 대표가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의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 학교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주도하는 방식은 진부하다. 지금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교육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또한 그 중요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일부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경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적 고질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척결하고,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을 보듬고 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 아이가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낯으로 나서겠는가?" 아니다. 학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성적보다는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열정적인 운영위원이다.

"돈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을 하기 어렵다?" 절대 아니다. 학부모위원이 가져야 할 것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정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지금 학교들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육 참여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

공공재산인 도서관의 책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룹시다

지난번 겨울 방학을 맞이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잡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학생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젊은층들의 공공재산에 대한 마구잡이 사용의식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커피로 얼룩덜룩한 소설책, 사진이나 그래픽이 잘려 나간 전공 서적, 형광펜으로 밑줄친 자격증 서적 등….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과 시립 공공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몸살을 앓으며 당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다. 일단 한번 대출됐다 돌아올 때마다 이토록 극심한 상처를 입는 통에 각 도서관은 매달 수백 권씩 훼손된 책에 다시 해당 자료를 찾아 이어붙이고 풀칠해서 땜질하는 식으로 치료하느라 바쁘다.

사서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의 한 유명 도서관은 대출 도서 중 매달 600권 이상이 훼손된 상태로 반납된다고 한다. 그 훼손 상태는 낙서가 돼 있거나, 갖가지 이물질이 묻었거나, 찢겨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인기 도서일수록 파손율이 높은데 그래서 뜯겨져 나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육지책으로 어떤 책은 아예 고정시켜버렸다.

공무원 시험서나 취업용 수험도서도 훼손이 심했다. 문제마다 볼펜으로 답을 적어놓거나, 새까맣게 밑줄을 긋거나 낙서를 해놓으니 온 책이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다. 책값 좀 아끼자고 공공의 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뿐이다.

일부 이용자는 게시대에 진열된 신문을 보다 필요한 부분을 오려가기도 한다. 직원과 함께 깜짝 놀래서 오리지 못하도록 말리면 "원본이 필요해 어쩔 수 없으니 봐달라"고 황당한 사정을 한다.

도서관에서 훼손 도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도서관 관리인이나 사서가 대출도서를 반납받을 때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많은 책을 일일이 들춰가며 살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닌 공공의 재산인 도서관의 책. 아끼고 깨끗하게 보는 공중의식 좀 가졌으면 한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사설

4·11 총선 불법·혼탁 유권자가 응징해야

4·11 총선과 관련, 광주지검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54명에 이르는 등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4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현실성 없는 국민경선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투신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데다 동원 선거 후유증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공식 선거운동(29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18대 총선의 선거사범 85명(구속 3명, 불구속 82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전망이다.

특히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과열·혼탁 선거를 낳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물론 당원들마저 나뉘어 원색적인 비방전을 펴는 등 우려했던 '진흙탕 싸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과열 분위기에 휩싸여 부화뇌동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향후 지역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잘못 뽑아놓고 재·보궐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과열선거는 또 지역 내의 갈등과 분열 등 후유증을 부를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한 표를 행사하는 공명선거 정신이 훼손돼선 안 되는 이유다.

후보의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지역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유권자의 의식이 절실하다.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육성 시급하다

취약계층이 많은 광주·전남지역특성상 사회적기업이 절대적임에도 이 지역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극히 미흡하고, 자립기반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인구대비 취약계층은 광주 4.5%, 전남 5.5%로 전국 평균(3.1%)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2.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사회적기업은 총 51개(광주 25개, 전남 26개), 고용자수는 1358명(광주 484명, 전남 874명)으로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0.09%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지역 중소 서비스업의 10%에 그쳤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자립기반도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주·전남지역은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회적기업의 육성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자원, 먹을거리, 생태환경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수박람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회적기업도 검토해볼 만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기초지자체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계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셜테이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4일 서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배우 차인표·신애라씨 부부를 비롯한 40여명의 연예인들이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박상민, 박완규, 장혜진, 김범수, 쥬얼리, 박미선 등 참가 연예인들은 한목소리로 탈북자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해안 바위 발파가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가수 신효범과 배우 김규리 등은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려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첨예한 찬반논쟁에 참여하거나, 시위 현장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회(society)와 연예인(entertainer)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 만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는 방송인 김제동과 김미화, 배우 김여진 등이 꼽힌다. 반값등록금, 광우병, 한미FTA, 한진중공업 파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때론 행동으로 보여줬다. 독도 분쟁을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든 가수 김장훈도 1세대라고 할 만하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젊은 팬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시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라는 평가에서다.

하지만 본업은 소홀히 한 채 '포장'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존재한다. 한 방송사는 지난해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규정'까지 만들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지도가 높은 소셜테이너들이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갖은 편견 속에 '딴따라'로 비하되곤 했던 연예인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격려할 일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